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8월 27일과 28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으며 백두산이 형상되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라는 글발이 걸려있었고 휘날리는 청년동맹기발들이 부각되어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청년중시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하시어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답례하시며 백두산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가고있는 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남녀청년 대표들이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을 담아 꽃바구니를 드리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제일본조선 청년동맹대표단과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대표단 단장들이 축기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청년전위가 되자!》라는 구호선창이 울려 퍼지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청년전위》라는 웨침으로 목청껏 화답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의 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집행부를 선거하였으며 서기부를 임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련대성 및 친선단체 대표들,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세계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인사들과 청년조직들에서 꽃바구니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어온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정을 승인하였다.

1.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2.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3.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
4.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
5.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

첫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대표들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들이 진행되는 동안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영웅이 되자!》, 《전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내 나라를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대회에서는 첫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대회에서는 제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대표단 단장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대회에서는 둘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김주일 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대회장에 조선소년단축하단이 입장하였다.

조선소년단축하단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축하시 《축하를 드려요 청년전위 오빠, 언니들에게》를 랑독하였다.

대회에서는 셋째 의정 《청년동맹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먼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후보자들도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다음으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추천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들도모두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 결정내용이 발표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선거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로 전용남, 비서로 박철민, 장현철, 배충일, 김경준, 리성호, 장룡길, 정영원, 함광철, 리금철이 선거되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또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부장들과 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이 임명되었다.

대회에서는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제9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진행된 청년동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회에서는 넷째 의정 《청년동맹의

명칭을 새로 명명할데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할데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열광적인 박수갈채가 터져오르는 장내는 크나큰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직접 수여하시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충정을 담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영광스러운 기발을 영원히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맹세를 다

지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의 구호선창에 화답하였으며 최고사령관기와 청년동맹기발, 붉은기를 흔들면서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대회에서는 다섯째 의정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청년동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새로 선거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당의 높은 믿음과 기대를 간직하고 일을 잘하라고 고무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으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강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대회는 끝났다.

대회가 끝나자 또다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터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대회참가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며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성대히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가 8월 28일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야회장인 5월1일경기장은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내어주시고 주체청년운동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열화같은 신뢰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상이 야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었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만리마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청년전위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었다.

해불야회 시작을 알리는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의 발언에 이어 해불봉을 추켜든 주체혁명위업계승자들의 대오가 입장하였다.

특색있는 해불대형변화가 펼쳐지는 야회장에 《계승》, 《청년강국》, 《우리



는 혁명의 계승자》, 《청년동맹 제9차대회》라는 글발이 부각되었다.

《혁명의 계승봉》 노래선물이 울려 퍼지는 속에 야회장에 달려나온 3명의 청년학생들이 500만 청년전위들의 굳은 맹세를 담아 봉화대에 불을 지피었다.

만리마시대청년봉화에 거세찬 불길이 솟구쳐오르자 야회장은 격정과 환희로 설레이고 《당을 따라 청년강국 앞으로!》라는 제명이 배경대에 새겨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기를 모신 무개차가 청년전위들의 응위

를 받으며 야회장에 들어서자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과 《영원한 태양의 청년동맹》 등의 글발이 찬란한 빛을 뿌리었다.

《1927. 8. 28》, 《1946. 1. 17》, 《1996. 1. 19》, 《한별》, 《광명성》, 《청년전위》, 《원수님 모시여 빛나는 청년강국》의 글발이 부각되고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의 글발이 배경대에 새겨지며 야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었다.

충천하는 화광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선군청년문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격대》, 《백두혈통》,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 《수령보위》의 글자를 새기며 해불대오는 도도히 굽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따라 혁명의 해불봉을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열혈청춘들의 신념의 분출인양 야회장에 《영원하라 청년강국의 해불이어!》의 글발이 펼쳐지고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야회가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미더운 청년전위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전위들의 해불야회가 조직성과 규률성, 예술성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이며 만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전체 출연자들과 창작가, 지도교원, 일군들에게 감사를 주시었다.

환희와 걱정이 차넘치는 장내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새로 창작된 노래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청년학생들의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대회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남녀청년들이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 고상한 사회주의미풍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이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데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또다시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걱정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듯이 손저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청년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의 선봉에서 우리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

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짧은 기간에 보다 높은 단계의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공화국의 핵무력고도화에서 커다란 군사적진보를 이룩한 국방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일군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걱정에 겨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가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총폭발시켜 선군혁명의 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지며 우리 나라를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로켓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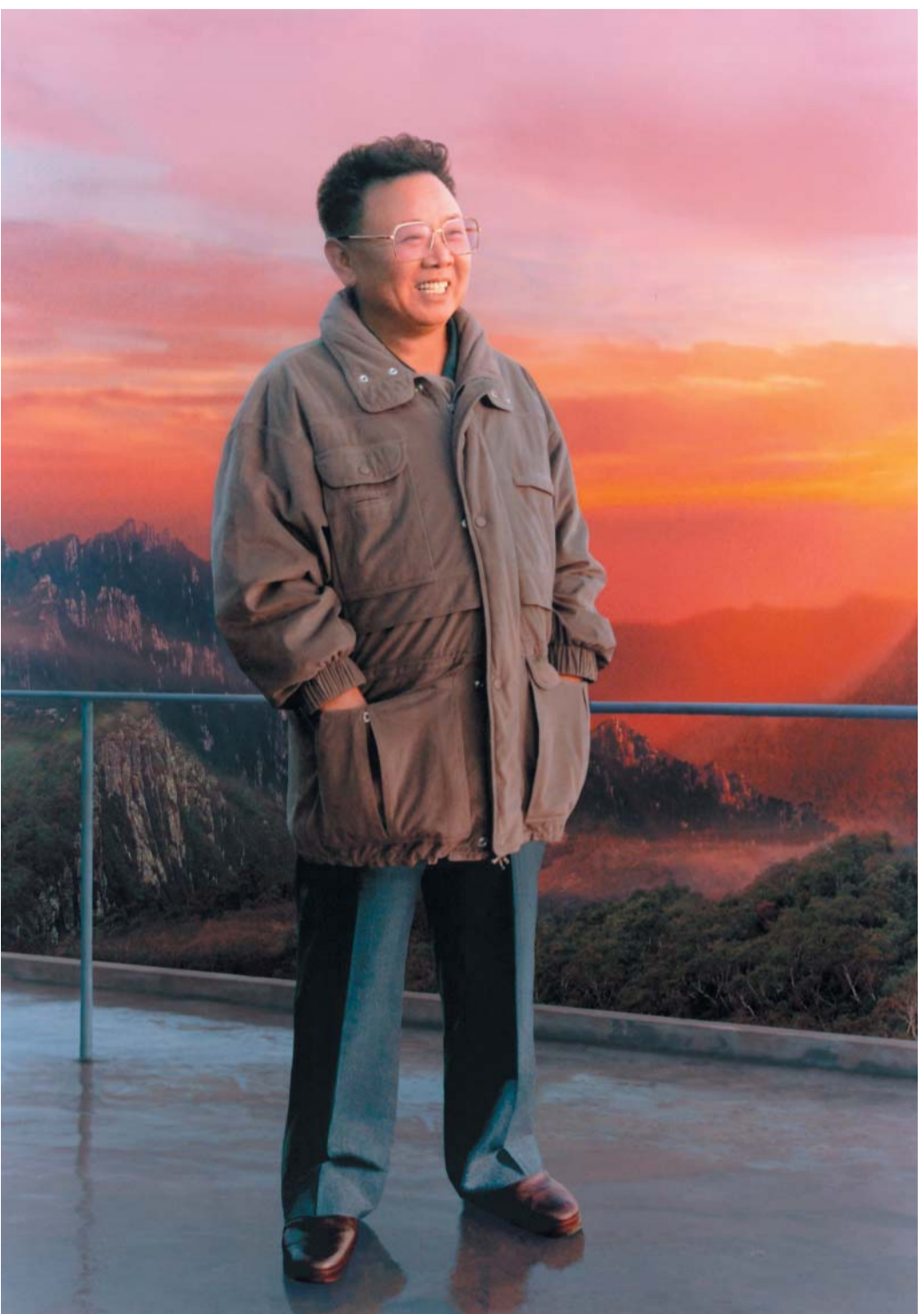
본사기자

금강산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동포애를 길이 전하여 갈 것입니다

8월 29일은 총련 금강산가극단결성 42돐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의 흐름속에 우리 가극단의 세대도 여러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할수도 달라질수도 없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천하절승 금강산의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우리 가극단의 사명입니다. 추억의 뜻을 달고 우리 가극단이 무어지던 첫 기슭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남녘겨레들에게 보여주고싶어 그토록 마음 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동포애의 세계가 뜨겁게 흘러들어 붓을 들었습니다.

1

감회도 새로운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2돐을 하루 앞둔 1974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감사와 축원의 마음을 안고 평양을 찾아온 우리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의 공연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초상화에서 뵈오며 운명의 태양으로 우리 르던 어버이수령님을 직접 몸가가 이 모시고 공연을 하는 행운을 받아안았으니 어떻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곱만같이 눈물만 앞서옵니다. 제가 그 무상의 영광을 가요 《끝없는 이 행복 노래부르네》에 담아 불러드렸을 때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잘 하오! 아주 훌륭하게 부릅니다!》라고 하시며 제일먼저 박수도 쳐주시고 몸소 채청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수령님의 하늘같은 축복을 받아안으며 노래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를 부를수록 저도 몰래 눈곱이 젖어지고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이 물결쳐왔습니다. 바람도 거치른 이역땅에서 갖은 민족적천대와 떨시를 받아온 저희들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총련을 무어주시고 우리들을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시어 마침내 인생의 새봄을 맞이하고 마음껏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크나큰 격정이 북받쳐와 저는 노래를 미처 다 부르지 못하고 흐느껴울었습니다. 떨리는듯 한 관현악선율이 저의 심정을 대변하고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말없이 눈가로 손수건을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수령님의 그 모습에 가까이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위하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정이 비껴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종목이 바뀔 때마다 크게 박수를 쳐주시며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에서 일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만이 아닌 온 겨레를 위한 원대한 구상이 무르익어가고있는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저희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해주시던 수령님께서 총련예술인들이 조국에



금강산 비로봉의 장쾌한 해돋이를 부감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음 왔는데 공연만 하지 말고 조국의 예술을 배워가는데 좋겠다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배워가는데 좋겠다고 하시는데였습니다. 후에 들은데 의하면 그해 3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총련 예술인들이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조국에 오게 된다는것을 아시고 평양대극장에서 공연하는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보여주시며 이국땅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에게 《금강산의 노래》를 안겨주고, 예술단 동무들이 조국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 가극을 배우게 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본땅에 휘몰아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열풍을 그려보며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총련에서 가극을 배우가지고 가서 일본에 다녀가는 남조선인민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금강산은 지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주적책동으로 말미암아 금강산에 와보지 못합니다. 오스트랄리아기자 베헤트는 <금강산의 노래>를 보다가 조국에 두고 온 딸을 생각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노래는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는 동포들과 나라의 분렬로 하여 고통받고있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큰 감명을 줄수 있습니다. 나는 이 가극이 조국을 떠나 해외에서 고생하는 60만재일동포들에게 좋은 선물로 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금강산가극단을 무어주는것입니다.》 이 얼마나 겨레의 심금을 울려주는 숭고한 동포애의 세계입니까. 약 1억년전인 중생대에 생긴 화강암체가 식어서 굳어지고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하여 천태만상의 경관을 이루었다는 금강산은 누구나 한번 보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조선의 절승입니다. 그러나 봉건의 질곡과 학대속에서, 수십년간의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수난의 세월 우리 인민의 꿈은 이루어질수 없었습니다. 언제인가 금강산을 인민의

명승지로 더욱 훌륭하게 꾸려주시기 위해 몸소 현지를 찾으셨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세계에 아름답기로 이름높은 조국의 명산 금강산을 우리의 선조들은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 인민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망국노의 생활을 하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에울수 없었던 처지에서 금강산을 구경할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가슴아픈 심정으로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누구나 선참으로 물어보는것은 천하절승 금강산에 가보았는가 하는것입니다.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금강산에 선녀들이 내리다 하지만 눈물고인 나의 눈엔 보이지않네 라는 피눈물의 노래를 부르며 생리별까지 강요당했던 황석민 일가가 노동당의 품속에서 인민의 명산으로 전변된 금강산의 새 력사를 노래하면서 20여년만에 다시 만나는 극적인 이야기로 담고있습니다. 금강산은 조선의 기상으로 간직하고 꿈속에서도 가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동포들이 인민의 락원으로 우뚝 솟은 금강산을 통째로 떠옮길것 같이 황홀하고 신비한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더우기 금강산을 지적에 두고도 가보지못하는 남녘의 겨레들, 통일되기 전이라도 금강

산으로 평양 대극장에 나오시어 우리들의 공연을 보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140여명이나 되는 전체 성원들에게 일일이 축배잔까지 짚어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금강산가극단을 꾸리고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를 공연하여 총련과 《민단》 동포들, 일본에 오는 남조선동포들과 일본인민들에게 보여주는데 대하여 거듭 당부하시였으며 앞으로 2년에 한번씩 조국에 와서 새 작품들을 배워가도록 하라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습니다.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시간은 퍼그나 흘러 수령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자 저희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그이의 승용차를 겹겹히 에워싸고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었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한번씩 오기로 했는데 매해 오기로 하자고, 해마다 와서 만나기로 하자고 하시며 목메어 흐느끼는 우리들을 달래시는것이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이런분이였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시고 동포애의 정으로 뜨거우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리르르 또 우리르르 우리 총련 예술단의 전체 성원들은 겨레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고 조국통일운동으로 불려일으켜야 할 사명감을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금강산의 선남선녀가 되어 돌아온 저희들은 그해 8월 29일 재일조선중앙예술단을 《금강산가극단》으로 명명하는 모임을 성대히 진행하였으며 공화국창건 26돐을 맞으며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의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을 시작하여 불과 3일동안에만도 총련과 《민단》 산하 동포들은 물론 남조선동포들과 일본인민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등 1만 1000여명이 가극을 관람하였습니다. 《도교한복판에 조선의 금강산이 솟아올랐다.》 《매혹적인 공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고 금강산에 올라 통일봄맞이 하자.》 《이 가극을 서울이나 부산에서 공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

2

은 일본땅이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열풍으로 뿔뿔이 찢어지는 속에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의 넋과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며 통일의지로 온 넋을 불태우던 그때의 광경을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도 잊을수 없습니다. 천하절승 금강산의 1만2천봉우리에 활짝 피어난 목란꽃처럼 애국충정의 질은 향기를 풍기며 저희들은 일본땅 가는 곳마다에서 동포사회의 열렬한 축복속에 공연무대를 펼쳐놓았습니다. 이후에는 가극의 주요장면들과 조국방문의 나날에 새로 배운 춤과 노래들을 형상하여 중국과 로씨야, 도이칠란드, 태평양강너 미국땅에까지 건너가 공연무대를 펼쳐놓았습니다. 공연무대가 펼쳐지는 곳마다에서 동포사회가 환호하고 세상사람누구나 박수갈채를 터칠 때마다 기쁨과 환희로 일어난지 오래된 지회들의 가슴에 미치지게 새겨지곤 한것은 총련 예술단만이라도 남조선에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였습니다. 한피줄을 나눈 그리운 혈육들이 살고있는 땅, 꿈결에도 그려보는 남녘의 겨레들을 찾아 금강의 향취, 민족의 향취가 넘쳐흐르는 노래를 듣고 춤을 듣고 출항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릴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은 마냥 부풀어올랐고 통일의지로 심장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

(4면으로 계속)

